

## 대학 교양 영역으로서의 번역 과목의 의의 --원격 교육 방법론을 중심으로 \*

김 정 우  
(경남대)

### 1. 번역 교육의 필요성

본고는 대학의 교양 교육 과정에 번역 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재 인터넷 강좌로 운영중인 영-한 번역 과목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설계 방안과 학습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번역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명암이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번역학을 인문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여 본격적인 연구 작업을 활발하게 시작하고 있는 희망적인 상황<sup>1)</sup>을 목격할 수 있는 한편으로, 여전히 오역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자연스럽지 못한 모국어로 씌어진 구태의연한 번역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물론 일차적으

---

1) 일례로 한국번역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가 1999년 10월에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제반 상황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들의 인식과 능력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관점을 조금 넓혀보면 우리 사회에 형성된 ‘번역 인프라’가 그다지 견실하지 못하다는 사실과도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의 문화사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미래의 잠재적 번역가에게, 번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실천 기법을 교육하는 일은, 좁게 보았을 때 외래 문화와 문물의 효율적인 수용과 창조적 변용에 기여하는 동시에, 넓게 보았을 때 장차 세계 문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를 크게 도약시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 제도를 고려했을 때, 이처럼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기본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현장은 대학 과정일 수밖에 없다. 외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연습’ 등의 교과목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번역 인프라’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번역 교육은 그러한 전공 과정에 개설된 과목이 아닌, 교양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우리가 교양 과목으로서의 번역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2)</sup>

첫째, 원천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 번역 교육은 무엇보다도 전공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현재 대학의 교육은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문계와 자연계 및 이공계를 막론하고, 선진 외국 이론을 외면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선진 외국 이론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처지라면, 우리에게서는 외국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번역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교양 과정에 번역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번역의 기초를 가르친다는 측면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번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특정한 콘텐츠의 번역을 전담하는 전문(번역)가의 부재이다. 이에 비하면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 정통한 일반 전문(번역)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콘텐츠의 전문가는 대학의 해당 전공 학과에서 양성될 수밖에 없다.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가진 번역가를 컴퓨터 관련 분야의 전문 번역가로 재교육하는 것보다는 번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컴퓨터 전문가를 컴퓨터 분야의 전문 번역가로 재교육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번역 과목이 교양 과정에 개설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역시 원천언어의 관점에서 번역 교육은 자연스럽게 외국어 능력의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능력 중에서 번역 교육은 최소한 외국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목표언어의 관점에서 번역 교육은 올바른 모국어 표현 능력의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국어 생활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번역가의 번역 작업도 시인이나 소설가의 창작 활동과 마찬가지로 모국어를 살찌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sup>3)</sup>

넷째, 콘텐츠의 관점에서 번역 교육은 교양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sup>4)</sup> 실제 강의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글을 주로 원천언어의 텍스트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 2. 인터넷과 번역 교육

### 2. 1. 번역과 번역 교육의 특성

번역은 무엇보다도 지식의 창조적인 재생산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3) 번역 교육의 이와 같은 역할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교양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어 작문’ 과목의 개설 취지를 떠올리게 된다.

한편 필자가 가진 외국어 능력의 한계로 여기서 다루는 외국어는 영어로 국한된다. 그리고 본고는 번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의 교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특정한 번역학 이론이나 사조에 기대고 있지 않다. 다만, 실제 강좌의 내용 구성은 송요인(1975)과 유영난(1991)의 논의를 참고로 했음을 밝혀 둔다.

4) 조동일(1991)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교육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가)전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기초적으로 필요한 과목 (나) 전공 과목의 폐쇄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취급하는 과목 (다)전공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았으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과목.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번역 과목은 대학에서 교양 과정으로 개설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술되듯이, 번역 교육에는 적어도 세 분야(원천언어의 독해 능력, 목표언어의 표현 능력, 해당 콘텐츠의 이해 능력)의 협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새로운 개념의 도구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교양 차원에서 개설되는 인터넷 기반의 번역 교육은 전통적인 개념의 교양 교육과 새로운 개념의 교양 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서 번역가는 이론과 기법을 획득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과 기법을 자신의 노하우로 내면화한 다음에야 비로소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나 탐색보다, 확보된 정보를 재생·가공·수정·재창출하는 창조적 능력을 중시하는 미래 지식 정보사회의 성격과 대단히 흡사하다(서혁 외[2000:2] 참고).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번역 교육의 첫 번째 특성을 디지털적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코자 한다.

다음으로 번역이 본질적으로 원천언어와 도착언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작업인 만큼, 번역 교육도 일차적으로 외국어와 모국어의 건강한 긴장 관계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외국어와 모국어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번역 교육은 외국 어문 전공과 모국어 전공 사이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 과목이 갖는 두 번째 특성, '협동 교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족스러운 영·한 번역 작업의 결과를 기대하려면, 번역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영어 원문을 완전하게 소화하여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한국어로 재현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치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능력이다. 이 밖에도 원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한국어 문장력의 최종 출력부를 구성하는 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번역 능력이란 대단히 복합적인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번역 교육도 여러 전공 영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번역/번역 교육이 갖는 세 번째 특성은 이론과 실제의 역동적인 상호 피드백 작용에 있다. 이론상으로나 경험상으로 볼 때, 번역에 능숙해지려면 번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익혀둔 다음, 양쪽 언어에 대한 감각과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번역 작업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경험을 쌓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제의 상호 작용이다. 번역이란 자신이 습득한 각종 능력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도제적(徒弟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번역 능력의 연마에는 경험자와의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자신의 과제물이나 번역 결과물에 대한 강의 담당

자의 침삭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학생들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현장에서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번역 교육은 출발 단계부터 종합적인 기본 능력의 함양을 전제로, 기본 능력의 연마와 실전 훈련이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를 엄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 2. 2.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문자, 소리, 사진, 그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이 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컴퓨터를 통한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검색·선택하며 필요한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의 이러한 특성은 바로 현대적 의미의 교육 내지 학습 과정과 유사하며, 따라서 인터넷 매체와 교육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양방향적 의사소통과 '일 대 다'의 정보 전달 가능<sup>5)</sup>

(나)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의 구현 가능

## 2. 3. 인터넷 기반 번역 교육의 효율성

번역 교육이 가지고 있는 '통합 교과' 내지 '학제적' 성격을 고려해볼 때, 개별 전공 사이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그어져 있는 우리 대학의 교과목 편제는 번역 교육에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은 학제간 협동 강의를 통해서 번역 교육을 구현하는 방

5) 이는 필자 개인의 경험적인 진술이다. 그러나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 평가 결과에서도 더욱 밀도 있는 침삭 지도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성기 (2001:143-146)에 소개된 '번역 교육'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6) 한 사람의 교수자가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일 대 다'의 정보 전달 특성을 갖지만,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교수자와 '일 대 일'로 수업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일 대 다'의 정보 전달도 강의실 수업과는 양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이상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원격 강의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원격 강의가 교과 과정의 구성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학과 사이의 장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나아가서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강의 기법을 번역 교육에 도입하면, 앞서 논의한 번역 과정에 담긴 기본 능력의 함양을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데 대단히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영어 원문을 번역하다가 생소한 단어를 만났을 때 강의 플랫폼에 마련된 단어 사전을 작은 팝업창으로 띄워서 뜻과 용법을 확인한다든가<sup>9)</sup>, 내용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지역의 문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웹 여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든가 하면, 번역에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 앞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이런 맥락에서 번역 교육은 대학과 출판계 및 언론계의 삼자가 한 자리에 모인 일종의 ‘지식 결합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번역 기법의 연마에 필수적인 침묵 지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일 대 일 지도가 어려운 강의실 수업보다 인터넷 강좌는 훨씬 효과적이다.<sup>11)</sup> 플랫폼에 마련

- 
- 7)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할 때, 현재 많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는 활용 여하에 따라 학제적 성격이 강한 교과목의 교수/학습에 효율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외국어문학 관련 학과에서 기본적인 원천언어 어학 능력(독해력)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국어국문학과에서 목표언어 표현 능력(작문, 문법 등)을 수강하는 한편,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의 지식(콘텐츠)을 해당 전공 학과에서 수강하면 어느 정도 이상적인 번역자의 조건에 근접하게 된다. 이 밖에도 법학과에서 저작권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경영학과에서 (출판) 유통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학점 디자인제’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로 필자는 번역 교육을 들고 싶다.
- 8) 현실적으로 집단 교수(team teaching)가 쉽지 않은 강의실 수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자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각자 자기 분야의 강의를 녹화해서 보여주는 가상 교육에서는 집단 교수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9) 물론 컴퓨터에 자체 내장된 <영한 사전>을 불러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 10) 인터넷을 활용하는 다른 교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학생들은 인터넷 강좌를 수강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정보 사회에 필요한 문식성(literacy), 즉 정보 검색과 활용, 재창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11) 이는 물론 강의실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규모가 인터넷 강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같은 내용

되어 있는 각종 형태의 게시판을 통해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강평 자료를 올려 놓을 수도 있고, 전자 우편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을 상대로 개별적인 첨삭 지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유게시판 등을 활용한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내지 인간관계의 형성도 강의실 수업보다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3)</sup>

결론적으로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및 콘텐츠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번역 교육의 특성상 웹을 활용한 가상교육 방안은 번역 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 3. 콘텐츠의 구성과 설계

의 강의를 같은 학기에 강의실과 가상 공간에서 각각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 가상 교육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열의 여하에 따라 교수자와 끊임없이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게시판을 통해 동료 학생들과 번역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첨삭 지도의 질적인 측면에서 가상 교육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 12) 어떤 분야의 교육이든 교실 강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원격 강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번역 교육의 경우에는 번역 교육 자체의 특성 때문에 원격 강의가 분명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원격 교육이 활성화된 나라의 예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집체(면 대 면) 교육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 교육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경제 용어를 빌린다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각급 학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hony Pym (2002)에서도 원격 교육(e-learning)의 무비판적인 확산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 13) 물론 이러한 장점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강의(또는 강의 외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가상 교육의 인정 시수(時數)를 강의실 교육의 2배로 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의 운영 경험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강의 콘텐츠의 질적 내용보다 과제물 첨삭 지도와 같은 강의 외적인 학생 관리가 가상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14) 가상 교육에서는 강의를 한꺼번에 녹화해 두었다가 계획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강의에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학생들의 새로운 반응은 가급적 게시판을 활용해서 다른 참여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어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에 반영하고자 했다.

### 3. 1. 콘텐츠 구성의 전제 조건

가상 교육의 콘텐츠는 주어진 강의의 목표를 실제로 구현하는 도구이므로, 강의 담당자가 의도하고 있는 기대 수준을 교육 현장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콘텐츠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주안점을 내용과 기술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15)</sup>

#### 1) 내용적 측면

콘텐츠 구성의 내용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강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강 요건에 선수 과목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외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부터 일반 인문사회계열 전공 학생들을 비롯하여, 예체능 계열과 이공계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수강 학생들의 전공 배경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콘텐츠의 내용이 이들의 다양한 학습 목표와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교양 과정에 개설되는 번역 과목의 콘텐츠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차 직업적인 전문 번역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 번역 작업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한편 자신이 연마한 기본 능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 기회도 어느 정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전공 학습과 관련된 원서의 번역서를 올바르게 읽기 위해 외국어 독해력의 연마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정도의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만 제공되면 충분하며,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번역 비평 내지 우리말 표현 능력의 연마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강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목

15) 필자는 2000년 2학기부터 국내 38개 대학이 회원교로 가입하고 있는 KCU(Korea Cyber University) 컨소시엄(한국대학 가상교육연합)에 교양 과정으로 번역 입문 과정과 번역 실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학기마다 대략 4-6개 대학에서 180-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16) 학생들의 학습 목표와 기대 수준은 강의를 시작할 때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표 수준은 대체로 직업적인 전문 번역가가 되기 위한 준비, 전공 학습을 위한 원서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sup>17)</sup>, 외국어(특히 영어) 학습의 방편, 우리말 글쓰기 연습을 포함한 모국어의 미학적 기능을 감상하는 기회 정도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강의 콘텐츠도 단일한 강의 목표를 상정하기보다 복합적인 강의 목표를 상정하고, 이를 지향점으로 삼아서 다음과 같이 다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8)</sup>

- (1) 좋은 번역을 가려낼 수 있는 판단력 내지 감식력의 함양
- (2) 좋은 번역에 필요한 기본 능력의 습득
- (3) 좋은 번역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의 연마

이러한 전제 하에 콘텐츠 구성의 내용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접 분야의 협동

번역은 외국어와 모국어가 만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문 전공자와 비(非)외국어문 전공자 집단의 취약 부분을 서로 빠트리지 않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이론과 실제의 조화

번역은 실제 번역 작업에서 능력의 유효성이 판가름나는 실천 능력이다. 따라서 이론을 위한 이론을 지양하고, 이론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19)</sup>

#### (다)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 기능의 안배

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심화 학습이나 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수강 목표에 맞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 목표를 세운 학생들에게 심화 학습은 중요한 의

17) 이 부류의 학생들은 미래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대비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8) 학생들은 이러한 다단계 목표 중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목표를 선택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 과제물과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연습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를 가질 수 있다.

## 2) 기술적 측면

콘텐츠 구성의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이 콘텐츠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 화면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강의 내용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를 화면에서 최적 상태로 구현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제작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콘텐츠 구성의 기술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학습자의 편의성 고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향상시키고, 화면 이동의 편의성과 학습 대기 시간>Loading Time)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나) 반복 학습 기능 제고

원격 강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강의실 수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현장감의 상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한다.<sup>20)</sup>

### (다) 자율 학습 및 첨삭 지도 기능 제고

예습과 복습 및 강좌 수강이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과제물에 대한 첨삭 지도(feedback)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라) 질문 사항의 즉각적 처리 기능 제고

강의를 듣는 도중에 발생한 의문 사항을 강의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최단 시간 안에 전달받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0) 실제로 음성 청취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강의안과 강의 녹음 원고를 파일 형식으로 올려두었는데, 학생들에게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 3. 2. 콘텐츠 구성의 실제

교양 영역에서 다루는 번역 과목은 기본적으로 2개 학기에 걸쳐 2개 강좌(입문과 응용)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개별 대학의 여건에 따라 1개 강좌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입문 강좌를 개설하는 편이 바람직하다.<sup>21)</sup> (구체적인 가상 강의실의 개요는 본고의 말미에 <부록 1>로 제시해 두었다.)

#### 1) 입문 과정

여기서 다루는 콘텐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sup>22)</sup>

##### (가) 번역 일반론

- ① 강좌 소개: 강의 계획 안내, 시스템 사용법 안내
- ② 중요 개념: 등가성, 의미 번역과 형식 번역, 직역과 의역
- ③ 사회적 의의: 번역가 현장, 번역가의 책임 의식
- ④ 한국 번역의 역사: 조선 시대 경전 번역의 전통
- ⑤ 좋은 번역의 조건: 외국어 해독 능력, 모국어 사용 능력

##### (나) 영-한 대조 문법<sup>23)</sup>

- 21) 번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영역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 관련 항목까지 강의 시간에 다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와 관련된 웹서핑을 통해서 문화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간접 체험하도록 권하고 있다.
- 22)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강의안과 중점 지도 내용)은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일부를 제시하기로 한다. 전체 강의안을 포함한 강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표가 아닌 관계로 <부록>에서도 ‘입문 과정’에서 일부만을 뽑아서 본보기 형태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 23) 이 부분이 입문 과정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기왕에 알고 있는 영문법의 지식을 국어의 문법 지식과 연관시켜 실제 번역 작업에 적용하는 능력을 주로 다루게 된다. 아무리 영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그 의미를 국어 문법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없다면 적어도 번역 작업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① 단수와 복수
- ② 품사의 대응 관계
- ③ 대명사(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
- ④ 관사와 조사
- ⑤ 부정사와 활용 어미
- ⑥ 시제와 화법
- ⑦ 경어법과 표준 화법
- ⑧ 수동태와 피동 표현
- ⑨ 어휘와 문장부호

(다) 국어 어문 규범

- ① 한글 맞춤법
- ② 표준어 규정
- ③ 외래어 표기법<sup>24)</sup>
- ④ 로마자 표기법

(라) 예시 번역 평가<sup>25)</sup>

(마) 번역 연습

- 24) 원천언어에서 의미 번역이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인명과 지명, 상품명 등 고유명사뿐이다. 이들은 음성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표기 규범이 국어 어문 4법의 한 부분인 <외래어 표기법>이다. 고대국어에서 한자를 이용한 차자(借字) 표기가 인명이나 관직명 등 고유명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외래어 표기 문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반대로 국어의 문장을 외국어로 옮기는 경우에는 국어의 고유명사를 외국어 글자로 표기하기 위한 표기 체계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한편 “고유명사나 지명 등은 아예 원문 그대로 둔 경우가 많았으며...”라는 안임수(2002:51)의 보고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거의 무지에 가깝다. 그리고 주변에서 익히 보고 있듯이 영화 자막의 표기 오류 가운데 상당 부분은 외래어 표기 오류이다.
- 25) 실제 번역서에서 이른바 악역(惡譯)으로 생각되는 예문을 뽑아서, 유형별로 정리한 다음에 해당 용례가 왜 악역인지 그 이유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어 문장론의 기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바) 현황과 전망

- ① 출판 환경의 변화와 번역가의 역할<sup>26)</sup>
- ② 번역사 제도와 전망

(사) 번역 관련 참고 자료 소개

위와 같은 강의 내용에 대한 한 학기 동안의 시간 배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① 강좌 소개와 번역 일반론(1-2주)
- ② 번역 사례 분석(3주-4주)
- ③ 영-한 대조 문법(5주-10주)
- ④ 국어 어문 규범(11주-12주)
- ⑤ 번역 연습(13주-14주)
- ⑥ 출판과 번역의 현황(15주)
- ⑦ 평가 및 과제물 강평(16주)

2) 응용 과정

응용 과정은 입문 과정에서 익힌 기본 능력을 심화시켜 실제 영문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단계이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번역 기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영문을 번역 해보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게 된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성한다.<sup>27)</sup>

(가) 제1 영역: 실전 번역 기법 소개

영어를 국어로 옮기는 실전 번역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중문 정도의 텍스트

26) 독자의 성향, 출판사의 동향, 출판 시장의 동향 등을 두루 언급하게 된다.

27) 이러한 콘텐츠 구성은 무엇보다도 실전 번역 능력의 향상과 번역 능력의 자가(自家) 점검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트<sup>28)</sup>를 번역하면서 만나게 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입문 과정에서 익힌 기초 이론을 적용하는 한편, 보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번역 기법을 익히게 된다. 학습자가 번역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되, 중복되는 주제가 없이 각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과 배열에 유의한다.<sup>29)</sup>

#### (나) 제2 영역: 단계별 문제 해결

번역할 원서의 선정에서부터, 원문의 독해와 우리말을 이용한 표현 과정을 거쳐, 교열과 퇴고에 이르기까지, 번역 작업 전반에 걸친 실제적인 문제를 여러 항목에 걸쳐 다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번역자가 실제 번역 작업을 하면서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는 일종의 ‘번역 매뉴얼’ 역할을 할 수 있다.

#### (다) 제3 영역: 영문 번역 연습

학생들 스스로 영문을 번역해보면서 앞서 학습한 기초 이론과 각종 번역 기법의 효용성을 체험하게 된다.<sup>30)</sup>

## 4. 강좌의 운영

### 4. 1. 강의 제작

인터넷 강좌의 초창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인터넷 강의의 실행을 가로막

- 28) 텍스트를 원어민의 발음과 속도로 읽어주는 프로그램(Read Please Plus)을 설치하면 학습자들의 외국어(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29)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 각 영역 안에 최대한 다양한 메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텍스트의 번역에서 다루게 될 핵심적인 번역 기법이나 한국어 어법, 어문 규범 등을 미리 점검하는 예습 메뉴라든가, 텍스트의 번역을 마친 다음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복습 메뉴, 텍스트와 관련된 가벼운 읽을거리 등의 휴식 메뉴를 적절히 배치하면 동기 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의 유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 30) 학생들은 강의 담당자가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올려놓은 예시 번역을 자신이 직접 번역한 결과와 비교하여 스스로의 번역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양질의 강의 제작 솔루션이 다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강의안을 만들더라도 이 강의안을 가상 강의실로 불러들이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31)</sup>

그러므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강의 운영에 꼭 필요한 기능은 사전에 확인해두어야 한다.<sup>32)</sup>

## 4. 2. 학사 관리

### (가) 출석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점검이 되므로 기록의 유지에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특별히 출석 상황이 저조한 학생에게는 쪽지 보내기 등을 통해서 수업 참여를 적극 권유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수강 학생의 간략한 신상 정보와 사진 이미지 파일을 수강 신청 자료로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다.)

### (나) 평가

출석 상황, 시험, 과제물, 분과 토론 등 평가 가능한 요소를 적정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33)</sup> 모든 시험과 과제물은 반드시 평가 기준과 결과를 알려 주고, 가능하면 내용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어야 학습의 진행에 효과적이다. 이 피드백은 인터넷 교육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교수자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31)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가 그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패턴은 화면에 강의안을 띄워놓고 이에 대해 음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강의 시작 시점이나 대주제가 바뀌는 시점에서 2, 3차례 동영상 기법을 활용하고, 텍스트와 관련된 그래픽이나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2) 강의 저작 도구 이외에도 출석 점검 기능, 과제물 출제와 접수 및 평가 기능, 게시판 기능, 자료실 기능 등이 필요할 것이다.

33) 가상 교육의 시험도 본질은 강의실 수업과 동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예컨대 인터넷으로 치르는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참고 자료를 컴퓨터 옆에 두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출제자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의사소통**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사전에 전달할 수 있고,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강의 참여 학생들 상호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서 강의 내용이나 진행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강의 담당자나 기술 요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라) 자율 학습**

강의안을 파일 형태로 자료실에 올려놓아서 강의 내용을 복습하게 하거나, 강의안 이외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자료실에 올려놓아서 보충 학습 내지 심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면 효과적이다.<sup>34)</sup>

## 5. 맺음말 - 한계와 전망

지금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번역 교육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했지만, 부정적 측면 내지 한계 또한 없지 않다. 그러한 한계는 인터넷이라는 도구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콘텐츠 자체의 미비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장감이 떨어진다고나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 정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수업의 진행에 반영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는 전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양한 외국어 자료의 결여로 이론의 일반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는 후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번역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 교육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가 꺾이지 않는 한, 양쪽을 결합한 인터넷 기반의 번역 교육도 상당 기간 동안 순탄한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5)</sup>

34) 학사 관리를 포함하여 강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KCU Workshop 자료집(2001, 2002/ 여름, 겨울)에 수록된 사례 보고를 참고할 수 있다.

35) 2000년도부터 시행된 정규 교과목을 통한 '정보 소양 인증제'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3년 이후에는 이러한 확산 분위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

인터넷 번역 교육의 이론적 뒷받침과 번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두, 세 가지 만 덧붙여 본다. 우선 영어와 일본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 언어권의 번역 성과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번역 문화 전반의 만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언어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번역 일반 이론의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판계 및 언론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번역가의 실제 활동 무대는 주로 출판계가 될 수밖에 없고, 번역가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작업은 언론계의 영향력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 번역가를 꿈꾸는 번역학도들이 현장감을 잃지 않고 자기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사회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려면 이와 같은 산학 협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번역이나 번역 교육을 다루는 홈페이지와 웹사이트 등의 자료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번역 포털 사이트’의 구축도 정보의 신속한 접근과 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이와 같은 포털 사이트가 구축된다면,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려니와, 번역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실제 번역에 종사하는 현장 번역가들도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번역 문화의 전반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서 혁·최지현·김미량. 2000. 『21세기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제고 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송요인.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서울: 동국대 출판부(英文).

로 보인다.

36) 유석훈 외(2001)에서 다룬 한국어 세계화 포털 사이트([www.WebKorean.org](http://www.WebKorean.org))가 좋은 참고가 된다.

- 안임수. 2002. 「학부제 하에서의 전공과 번역 지도」, 『번역학연구 3-2』, 47-62.
- 유석훈 外. 2001. 『2001년도 한국어 세계화 포탈사이트 개발 및 구축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유명우. 2003. 「대학의 외국어 교육과 번역 교육」. 『2003년도 한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20.
- 유영남. 1991.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 조동일. 1991.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서울: 지식산업사.
- Anthony Pym. 2002. “E-Learning and Translator Training,” *Sookmyu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Studies*, Seoul: Korea.
- 전성기 옮김. 2001. 번역의 오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Marianne Lederer.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Paris: Hachette Livre)

K C I

## 부록 1: 가상 강의실 개요

### 1. 입문 과정

#### (1) 초기 화면<sup>37)</sup>

- ① 과목 공지사항: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과제물 제출, 시험 실시 안내 등)을 알리는 곳
- ② 교수 계획서: 학생들이 항상 참고할 수 있게 한 학기 동안의 강의 계획서를 소개하는 곳
- ③ 강의 콘텐츠: 학생들이 듣게 되는 강의 내용(아래에 다시 소개함)
- ④ 등록 관리: 과제물과 시험을 등록(출제)하는 곳
- ⑤ 평가 관리: 과제물과 시험을 채점하고 피드백을 하는 곳
- ⑥ 성적 관리: 최종 성적 산출하는 곳
- ⑦ 성적 이의신청: 성적에 관한 학생들의 이의를 받는 곳
- ⑧ 질의 응답: 강좌와 관련된 질문 사항을 받는 곳
- ⑨ 과목 FAQ: 자주 묻는 질문을 등록하는 곳
- ⑩ 자료실: 강의에 참고할 파일을 올려놓는 곳(강의안, 강의녹음원고, 참고 자료)
- ⑪ 자유게시판: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는 곳
- ⑫ 설문 조사: 강의 평가 등의 설문 조사
- ⑬ 과목별 설문: 본 과목의 설문 조사
- ⑭ 실시간 강의: 학생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강의할 수 있는 곳(현재 미사용)
- ⑮ 메뉴 세팅: 메뉴를 바꿀 수 있는 장치

37) 사용된 강의 저작 도구(editing tool)는 NICE II(New Instrument for Cyber Education, version 2)이다. 구체적인 화면은 아래 사이트의 샘플 강좌 보기 ([www.kcu.or.kr](http://www.kcu.or.kr) → KCU 컨소시엄 → 개설 강의)로 대신한다.

(2) 강의 콘텐츠 화면: 위 메뉴에서 ③(강의 콘텐츠)을 클릭하면 강의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해당 주차의 주제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열리면서 해당 주차에 대한 강의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동영상으로 나온다. 이 화면이 종료되고 나서 우측 하단에 있는 본강의 듣기를 클릭하면 강의안이 뜨고 음성 설명이 진행된다.

## 2. 실전 과정

초기 화면은 입문 과정과 동일하므로, 강의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운영 방법도 동일하다. 실전 과정의 강의 콘텐츠는 입문 과정과 달리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예습(아래 ①-④)과 음성 강의(⑤-⑥)와 복습(⑦-⑨)으로 나뉘어 있다.

학습 메뉴는 매주 같은 형식으로 내용만 바뀐 채로 반복된다. 예를 들어 제2주차 강의는 <까마귀와 여우>와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까마귀와 여우>를 클릭해서 왼쪽의 메뉴바를 보면, 맨 위의 메뉴가 '원판과 현대판'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원판'을 누르면, 아래 ①부터 ⑨까지의 내용이 항목을 클릭할 때마다 차례로 나오게 된다. '원판'의 학습이 끝나면, 다음에 '현대판'을 눌러서 다시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매주 두 이야기를 다루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원판과 현대판으로 나뉘므로 결국 4개의 텍스트를 다루게 되는 셈이다.

- ① 번역 포인트: 본문에서 다룰 영-한 번역의 중요 기법을 예문과 함께 소개한다. 학습자는 이 내용을 예습해 두었다가 그 아래에서 본문을 읽고 우리말로 옮기는 연습을 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게 된다.<sup>38)</sup>

38) 구체적인 주제로는 단위 명사의 번역, 호칭어와 지칭어의 어휘장 차이, 평행 구문의 번역과 문장 리듬의 조절, 문장 부호의 용법, 비유 표현의 번역과 외래어의 바른 표기, 순차적 번역,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번역, 관용구와 인용문, 대구 표현, 대용어(代用語)와 번역, 난해 맞춤법 용례 검토, 도량형의 번역과 화제어의 처리, 등장인

- ② 우리말 문장 연습: 본문의 번역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오는 우리말 구문을 예문과 함께 소개한다. 학습자는 이 내용을 미리 읽으면서 우리말 문장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동시에, 번역에서 모국어 표현 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게 된다.
- ③ 영어 단어 사전: 본문에 나오는 영어 단어 가운데 중요한 몇 단어를 골라서 등록해 두었다. 학습자는 이 내용을 예습할 수도 있고, 본문을 읽는 도중에 작은 창으로 띄워서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④ 텍스트 내용 소개: 본문에서 다룬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 ⑤ 본문 제시 및 번역(해설): 본문(영문 원문)이 설명 부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설명 부분에는 밑줄과 함께 번호가 붙어 있는데, 해당 번호를 클릭하면 관련된 내용이 음성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단어 뒤에 붙은 표시는 단어의 뜻을 간략하게 알 수 있는 팝업창이다. (여기서 다루는 번역 해설은 비교적 중요한 항목에 대한 설명만 두세 가지 정도 빼놓아지고, 나머지 전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번역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자료실에 올려놓았다.)<sup>39)</sup>
- ⑥ 모범 번역 제시: 위에서 다룬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학습자가 스스로 전문을 번역해 본 다음에, 해설자가 옮긴 번역문과 비교해 보는 자리이다. 물론 이 번역도 하나의 가능한 번역일 따름이다.
- ⑦ 복습: 강의에서 다룬 번역 기법과 중요 사항을 반복해 두었다. 간단히 점검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반추해 보는 자리이다.
- ⑧ 국어 어문 규범 익히기: 번역에 필요한 국어의 기본적인 국어의 어문 규범 전반(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물과 대화 양상, 속담과 번역 등을 들 수 있다.

39) 이 가운데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번역가의 조건, 원서 선택의 조건, 원문의 종류와 번역 태도, 번역과 전문 지식, 번역의 어휘와 문체, 번역을 통한 새로운 우리말 창조, 각종 사전의 활용, 국어 사전의 효용성, 어순 차이에 대한 인식, 사전 뜻풀이의 한계, 문어 능력과 구어 능력, 몸짓 언어의 학습, 성별과 언어 차이, 방언의 번역, 특수한 시제 용법과 번역, 부정 표현과 비논리적 표현의 이해, 유사 단어의 구분, 무생물 주어의 번역, 접표의 기능과 번역, 부정의문문의 번역, 강조 어구의 파악, 병렬 어구의 번역 뒤집은 번역, 번역문의 문장 끝처리, 고유명사의 번역, 역주, 구두점의 처리, 오역의 발견과 수정, 생략과 번역, 번역문의 퇴고 등을 꼽을 수 있다.

관련된 내용을 한 회에 3-5문항씩 문제 형식으로 제시했다.

- ⑨ 쉬어가는 시간 1/2: 말 그대로 '쉬어가는 시간'이다. 가벼운 읽을거리를 마련해 두었다.

KCS I

## 부록 2: 강의안 샘플과 중점 지도 사항

### 입문 과정

#### 제5주차 강의

(1) 강의 시작에 앞서 동영상으로 이번 강의의 목표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

#### [강의 목표]

1. 번역과 대조 문법(2-1) 주격 조사 ‘-이/가’와 주제 표시 조사 ‘-은/는’
2. 번역과 대조 문법(2-2) 관사 ‘a/the’와 조사 ‘-이/가’ 및 ‘-은/는’의 대응
3. 번역과 대조 문법(2-3) 부정사와 활용 어미

(2) 본 강의는 아래 강의안을 화면에 띄우고 음성으로 설명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판서를 활용함

#### 1. 번역과 대조 문법 (4)

##### ① 주격 조사의 핵심적인 기능: 배타적 지정

(1.a) 결국 당신이 와 주셨군요.

(1.b) 결국 와 주셨군요.

##### ② 특수조사 ‘-은/는’의 기능: 배타와 대조이다. (\* 배타 < 대조)

(2) 이 식물이 고산에서 는 잘 자란다.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3) 생물은 좋아했지만 화학은 싫어했다. (‘생물’과 ‘화학’의 대조)

##### ③ 특수조사 ‘-은/는’: 주제 표시 기능 \* 주제화(topicalization)

- (4) 소나무는 상록수이다.
- (5) 종현이는 머리가 참 좋은 아이이다.

- ④ 주격 조사 ‘-이/가’와 특수조사 ‘-은/는’의 용법 차이
  - (6.a) 종현이가 반장이다. (주어 ‘종현이’에 초점이 놓임)
  - (6.b) 종현이는 반장이다. (서술어 ‘반장이다’에 초점이 놓임)

- ⑤ 특수조사 ‘-은/는’: 옛 정보(old information)  
주격 조사 ‘-이/가’: 새 정보(new information)

- ⑥ 특수조사 ‘-은/는’은 단락의 도입부에 못 쓰임
  - (7.a) 아주 먼 옛날 우리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았지요.
  - (7.b) 아주 먼 옛날 우리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는 살았지요. (?)

- ⑦ ‘-이/가’ : ‘-은/는’ = 부정관사 ‘a’ : 정관사 ‘the’

(8)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n Emperor named *Mu* in ancient China. The Emperor had two beautiful daughters.

(9) 고대 중국에 무라는 황제가 살았는데, (그) 황제는 딸이 둘이었다.

2. 번역과 대조 문법 (5)

① 특수조사 ‘-은/는’의 남용

- (10)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oy on the seaside.
  - (10.a)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 (10.b)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
- (11) Man is mortal without exception. \* 총칭적 술어(generic term)
  - (11.a)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 (11.b)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 (?)
- (12) Who was it that arrived? / It was I that arrived.
  - (12.a) 누가 왔니? 내가 왔어.

(12.b) 누가 왔니? 나는 왔어. (?)

(13) What is your name? / My name is Jang-su.

(13.a)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장수야.

(13.b)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이 장수야. (?)

② 주격 조사와 특수조사의 용법 확인 연습

(14) Bertrand Russell, reared in this tradition, later recalled the period when he hoped in time there would be ‘a mathematics of human behaviour as precise as the mathematics of machines.’ Then Darwin made another scientific revolution.

(14.a) 이러한 전통에서 성장한 버트런트 러셀은 훗날 언젠가 기계에 관한 수학만큼이나 정확한 인간 행태에 관한 수학’도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기를 회상했다. 바로 그때 다윈이 또 다른 과학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14.b) 이러한 전통에서 성장한 버트런트 러셀은 훗날 언젠가 기계에 관한 수학만큼이나 정확한 인간 행태에 관한 수학’도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기를 회상했다. 바로 그때 다윈은 또 다른 과학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3. 번역과 대조 문법 (6)

① 목적 표시 부정사: ‘...하기 위하여’ - 한문 번역의 잔재

(1) We eat in order to live.

(1.a)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1.b) 우리는 살려고 먹는다.

② 부정사 구문은 국어의 연결 어미로 처리하면 좋다.

(2.a) Let’s go out to play the baseball.

(2.b) 우리, 야구 하러 나가자.

(3.a) My grandfather lived long enough to see me married.

(3.b) 할아버지께서는 오래 사셔서 내가 짝을 지은 일까지 보셨다.

(4.a) I am very glad to meet you.

(4.b) 널 만나서 무지 기쁘다.

③ 연결 어미를 이용한 부정사의 번역 연습

(5.a) Unfortunately even the few drops stopped and presently the moon shone in a clear sky.

(5.b) 안타깝게도 그 몇 안 되는 빗방울조차 멈추더니 어느 틈엔가 맑은 하늘에 달이 빛나고 있었다.

⑤ 부정사 구문의 번역과 형식 명사 ‘것’의 남용 - 모호한 문장 양산

(6) It is wrong to tell a lie.

(6.a)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6.b) 거짓말하는 버릇은 나쁘다.

(7) Nothing is so important as friendship.

(7.a)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7.b) 우정보다 소중한 보배는 없다.

(8)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in the world.

(8.a)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다.

(8.b)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다.

(3) 학생들의 보충 학습을 위하여 자료실에 다음의 관련 자료를 파일 형태로 올려 놓음

- ☞ 참고 5-1 ‘영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 용법 정리’
- ☞ 참고 5-2 ‘주제와 주어의 차이에 대하여’
- ☞ 참고 5-3 ‘국어의 조사와 특수조사에 대하여’
- ☞ 참고 5-4 ‘국어의 활용 어미: 분류와 기능’
- ☞ 참고 5-5 ‘국어의 활용 어미: 용법의 제약’
- ☞ 참고 5-6 ‘번역문과 명사형 ‘음’의 남용’

(4) 중점 지도 내용: 음성 해설에서 강조할 사항

1. 국어의 '-은/는'과 '-이/가'의 용법 차이
2. 위의 두 조사와 영어의 정관사/부정관사의 대응 관계
3. 국어 조사 '-은/는'의 남용 현상 지적 및 이와 관련된 번역 연습
4. 국어의 연결어미를 사용한 영어 부정사 구문의 번역
5. 국어 연결어미의 용례 개관
6.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남용되는 의존명사 '것'의 대응 어휘

K C I

[Abstract]

**A Need for Opening a Course Related with Translation Studies in  
the Field of Liberal Art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E-Learning Method—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has three main purposes: first, to argue that the translation education should be introduced as a course of the liberal ar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ound infrastructure of translation; second, to discuss that the internet-based learning method is better than the traditional one; third and last, to show the organization of the contents of the internet-based translation education course.

If a translation course is to be opened as a part of the liberal art curriculum in universities, some positive results could be achieved. It is desirable that an effective way of practising translation education involve distance education based on the internet, rather than that of the traditional face-to-face one performed at classrooms, for the special qualities of translation or translation education will harmonize with the internet-based module.

From the viewpoint of software, an instructor should place a high emphasis on the different levels of student backgrounds, including other facts such as its inter-disciplinary character and its interactive dynamism of theory and practice. From the viewpoint of hardware, it is critical to make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content itself and technological aspect which will optimize it on the computer.

In this paper, contents of the course are shown, which include the introductory level and the advanced level. Finally, some tentative ideas are proposed as a

propeller to activate the internet-based translation education.

K C I

▶ Key Words: liberal arts education, translation education, e-learning, inter-based teaching method, design of contents